

“언어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본 차별과 혐오의 담론”에 대한 토론문

김형주¹

중앙대^{1*}

godwithhj@cau.ac.kr^{1*}

본 연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과 혐오의 담론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고찰하고 있다.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혐오 표현, 차별 표현이 아닌 그 표현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입체적으로 조망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 표현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바이고 큰 배움을 얻었다.

평자가 이해한 논자의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언어 이데올로기에는 ‘사회적 존재자로서의 화자와 그 화자의 언어행위를 통합적으로 보는 관점’과 ‘이를 분리하여 보는 관점’이 있다. 분리하여 보는 관점은 언어의 합리적, 논리적 특성에 근거하여 이를 객관적 의미 전달 체계로 보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이 입장은 ‘공정과 합리’를 화두로 은닉된 차별과 혐오 표현을 일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은 욕설과 같은 즉자적인 혐오, 차별 표현보다 더 해롭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련화되고 가공된 은닉적 혐오, 차별 표현은 이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쉽사리 배제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주지 않거나, 우리 생활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실권을 지닌 공적 언어 세계에 진출하기에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양성평등 담론(실제로는 반 페미니즘 담론), 일자리 공정 절차 담론(실제로는 반 비정규직 정규화 담론) 등과 같은 형태로 지금 한국 사회에 만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탈맥락적 언어 이데올로기의 본질을 깨닫고,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면서 평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느낀 점과 질문으로 논평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는 평자의 이해를 위한 질문이고, 둘째, 셋째는 논자의 입장에 대한 평자의 소견에 가깝다.

1. 언어 이데올로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언어가 “사회적이고 체화된 존재로서의 화자와 분리될 수 있”는 “추상적 의미 전달 체계”이기 때문에 언어 이데올로기가 단순히 “언어가 사용되는 양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이라면 이는 언어현상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독립된 관점이라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를테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와 같은 유아론적(solipsistic) 입장이 평범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과학적 상식(scientific common-sense)으로부터 직접 추론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니면 달리 생각하여, 언어 이데올로기는 언어 현상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이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언어 이데올로기를 통한 언어 현상 분석은 현상 분석을 넘어 본질 이해의 차원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렇다면, 특정한 언어집단을 대표하는

언어 이데올로기, 다시 말해 헤게모니를 획득한 이데올로기의 가능성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이데올로기의 틀로써 언어 현상을 조망하면 사회의 구조, 삶의 양식 등과 같은 심연적 문제들에 관한 유의미한 해석이 도출될 수 있을 것 같다. 논자가 생각하는 ‘언어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요컨대 구조가 먼저인가 언어행위가 먼저인가?

2. 논리성과 합리성만을 추구하는 언어 이데올로기가 현실의 언어 행위의 장에서 사실상 가능한가? 논자가 제시한 “페미니즘은 남성성에 대한 역차별이다”라는 표현을 예로 들어 보자. 페미니즘의 언어 이데올로기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권리와 공정’을 가장한 차별적 발언이지만, non-페미니즘(페미니즘의 여집합)의 언어 이데올로기의 시각에서 보면, 이 언명(statement)을 촉발한 페미니즘의 명제(예를 들면 ‘현재는 남녀차별의 시대다’)가 ‘권리와 공정’을 가장한 차별적 발언이다. 거꾸로 말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정치를 요구하는 것이다”와 같은 발언은 사회-언어 체화적 존재성을 추상화한 기계적 언어사용전략이라기보다는 합리성을 내세운 자기 언어 이데올로기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주장을 위한 언어표현에 태그(Taged)된 부차적인 설명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안은 화자의 솔직함이다. ‘공정과 권리’라는 가치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 다만 ‘공정과 권리’라는 깃발 속에 숨겨진 불합리한 이기심이 문제일 뿐이다. 이 관점은 페미니즘과 non-페미니즘 모두에게, 관용주의자와 통합주의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페미니즘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어떤 non-페미니즘은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어떤 페미니즘은 정당화될 수 있지만, 어떤 non-페미니즘은 그렇지 않다. 나아가 어떤 페미니즘은 정당화될 수 있고, 동시에 어떤 non-페미니즘도 정당화될 수 있다. 둘 다 부정될 수도 있다.

첨언하자면 평자의 소견으로는 태깅은 태깅일 뿐이다. 본질은 발언 그 자체이고 모든 사회적 발언의 배경에는 자기 관점과 이익(interest)이 근거로 작용한다. 논리성과 합리성이 일종의 태깅적 수단으로 사용될 때, 이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논리는 자기 발화들을 쌓아 통일성을 부여하는 수단이어야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3. 한때 유행하였던 해체주의의 역설이 떠오른다. 권력화된 ‘이즘(ism)’의 해체를 주장했던 이 주장이 힘을 얻게 되어 그 또한 ‘이즘’이 되면 ‘권력의 해체’라는 강박을 지니게 되어 자승자박의 우를 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모든 관점의 뒷면에는 자기의 생활 세계가 굳건히 존재할 뿐이고, 필자가 언급한 근대인들(필자에 따르면 17-18세기 부르주아 남성)의 이상적 언어는 그저 논리적 정당성만을 갖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 예로 “17-18세기 부르주아 남성”이라는 논자의 표현에는 이미 논자의 관점과 이 글의 주장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다.